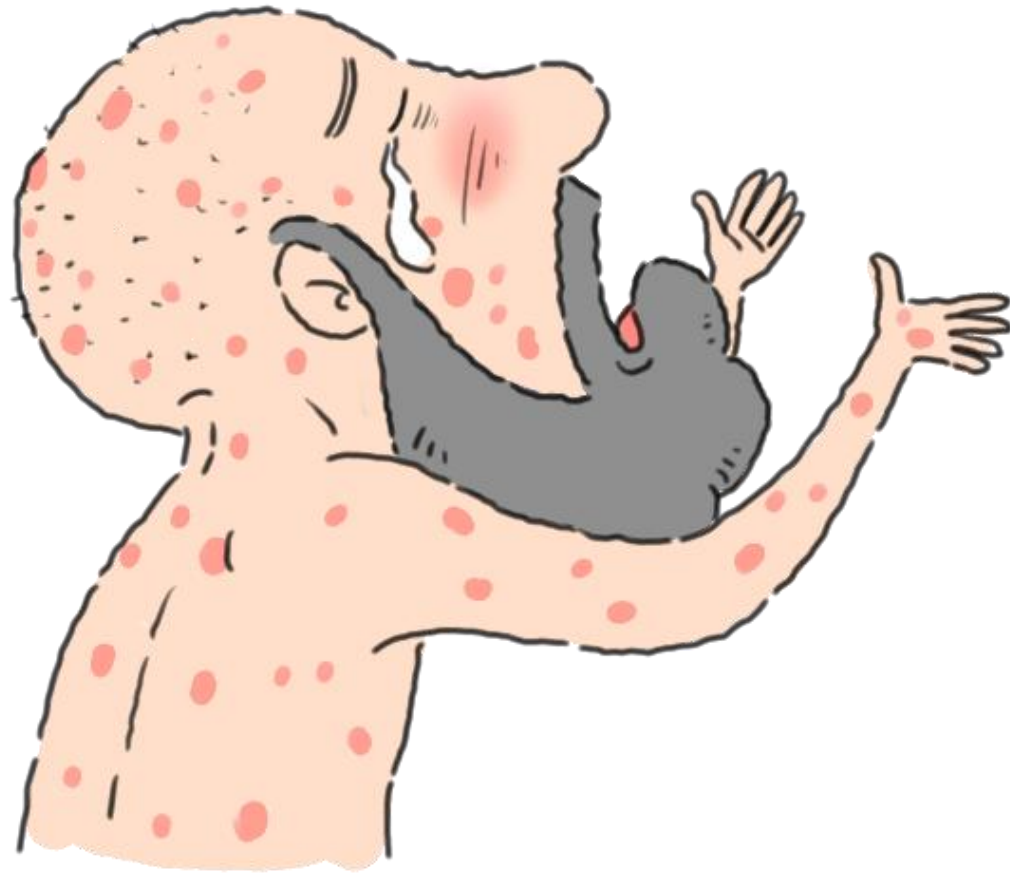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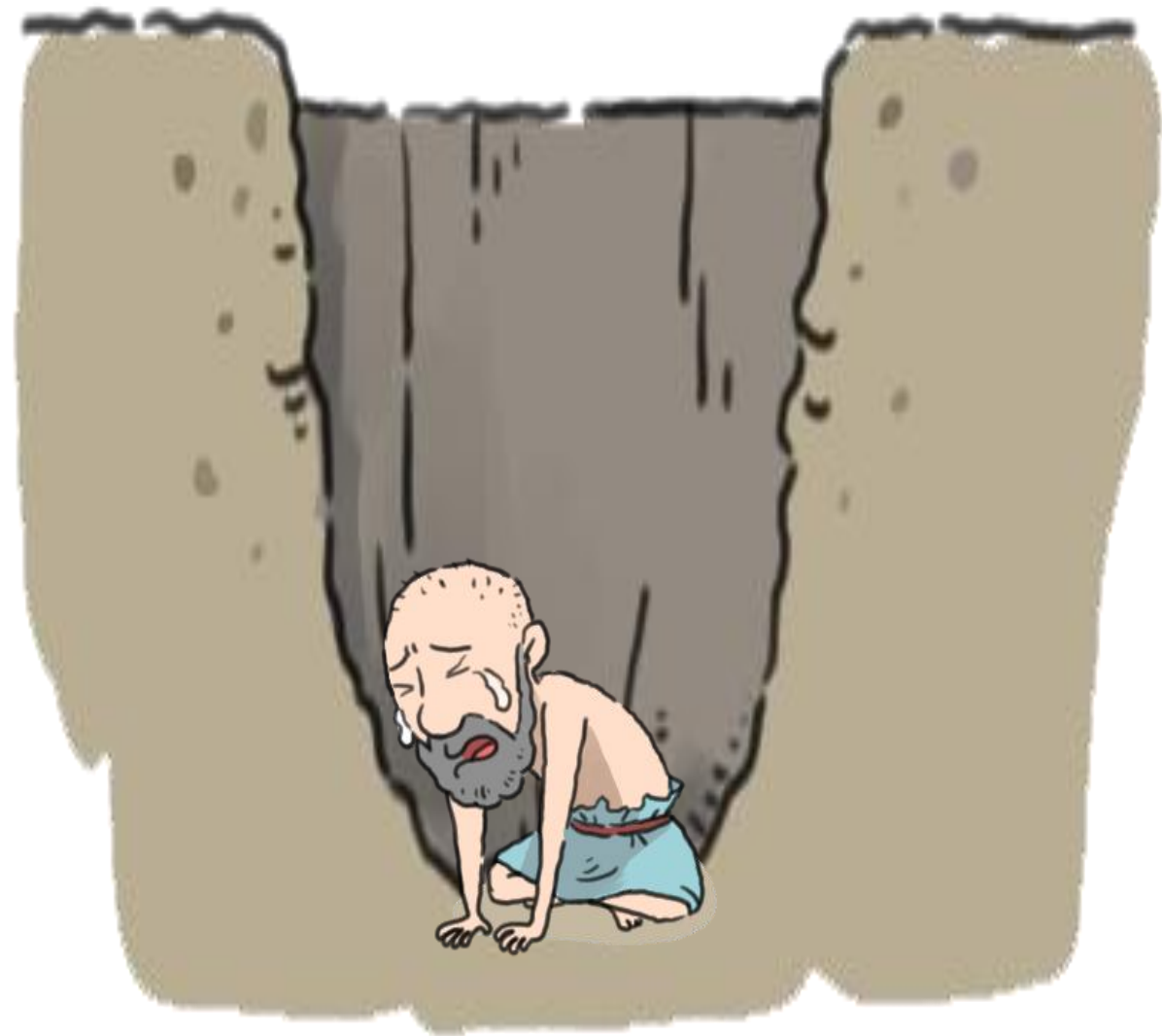
하나님, 대답해 주세요

욥기 10장 1-7절



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달려온
세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해주었지만,
친구들은 돌아가며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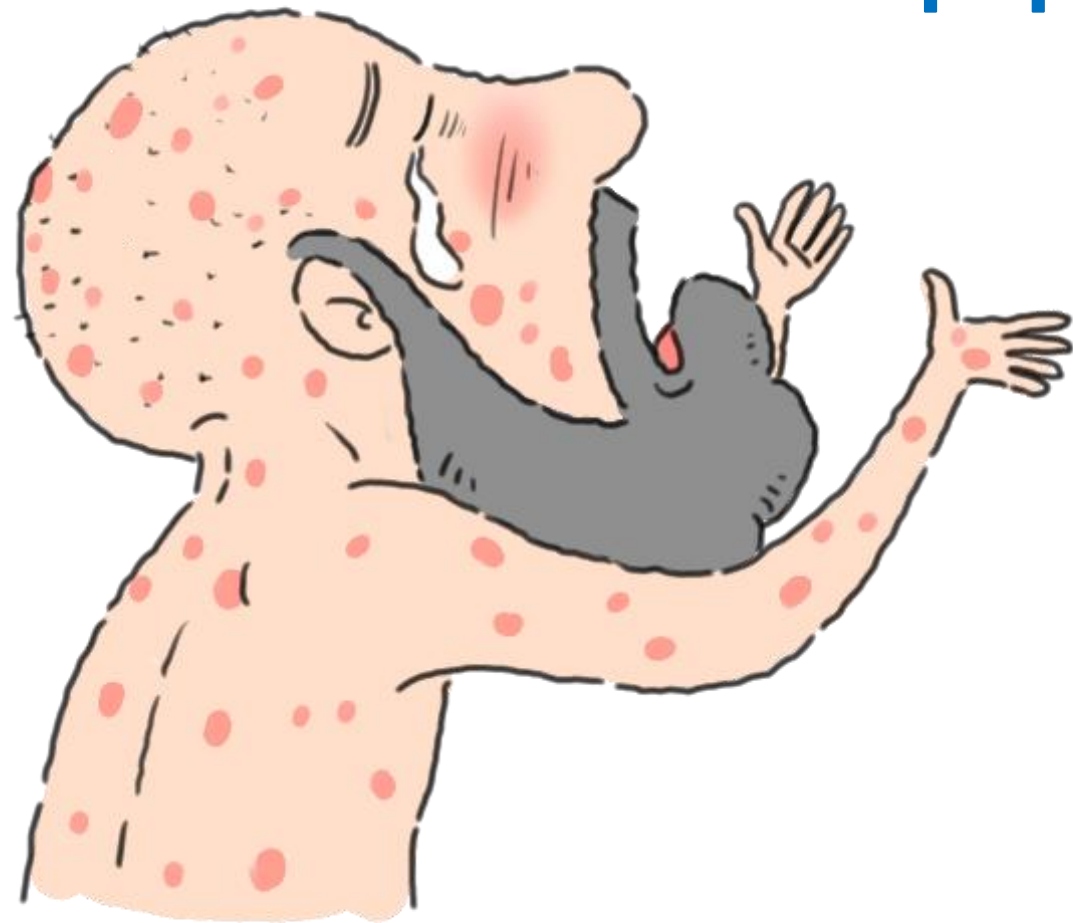


예전에 하나님은 욥에게
좋은 선물을 들푹 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,
이제는 왜 이런 고통의 구덩이로
밀어 넣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.

욥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.



“하나님!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?
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?”라고 질문했지만
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.



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시고
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.





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
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해요.